

단결 노동자, 불행한 미래 없다

한국지엠지부-부품사 일자리 지키기 인천대회... “외투·먹튀자본 견제 법 제도 쟁취투쟁으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한국지엠 정부지분 매각을 반대하며 일자리 지키기 투쟁을 이어갔다.

노조 한국지엠지부는 7월26일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민주노총 인천본부, 금속노조 인천지부, 인천지역연대, 인천시민



사회단체연대와 함께 ‘한국지엠-부품사 30만 일자리 지키기 인천지역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은 16시쯤 부평공장 조립사거리에 모여 약식 집회를 벌인 뒤 부평역까지 행진을 전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정리하고 철회 투쟁을 벌이는 인천지부 동광기연지회 전체 조합원과 노조파괴와 불법위장도급에 맞서 파업 중인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함께해 큰 박수와 격려를 받았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한국지엠이 철수하면 30만 노동자의 생존권 무너지고, 인천 경제가 무너진다. 세계 경제 위기 때 자동차산업이 망한 미국 디트로이트

처럼 황폐화 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김상구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존중사회를 공약했다. 노동존중사회는 노동자들이 만들겠다. 정부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라. 먹튀 자본 막고 한국 노동자의 일자리 지키고 만드는 사회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임한택 지부장은 대회사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10월16일 산업은행의 한국지엠 이사회 결정에 대한 거부권 보장 등 현재계약 유지 ▲2010년 한국지엠과 산업은행이 만든 비밀문서 공개 등 두 가지를 요구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임한택 지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7월17일 청와대 앞 결의대회 이후에

도 요구에 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지엠 노동자와 부품사 노동자 30만명이 정부와 지엠만 바라보고 있다. 정부가 지엠 자본의 철수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강력 촉구했다.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연대사에서 “한국지엠지부 동지들은 오늘 대회 이후 현장을 조직해 달라. 단결한 노동자에게 불행한 미래는 없다. 지엠 먹튀 막고 일자리 지키는 대장정을 시작했다. 조합원 단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창곤 본부장은 “한국은 주권국이지만 외투, 먹튀자본을 견제할 법제도가 없는 국가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오늘 결의대회는 한국지엠을 뛰어넘어 외투자본을 견제하는 법제도 쟁취 투쟁의 출발점이다. 깨어있는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견제장치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호소했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해고자 복직 합의

9월까지 미포 사내하청 해고자 네 명 복직 합의...현중 사내하청 조합원도 순차 복직

업체 폐업과정에서 금속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찍혀 해고된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조합원 네 명 전원이 복직한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지회장 하창민, 아래 지회)는 울산 동구 성내삼거리 고가도로 교각 위에서 농성 중인 이성호, 전영수 두 조합원을 비롯해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업체인 동양산업개발 소속 해고 조합원 네 명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고 7월25일 밝혔다. 고공농성 106일만이다.



지회는 7월25일 현대미포조선 외주협의회 회장과 실무협의를 벌인 끝에 15시 무렵 해고 조합원 복직을 9월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지회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해고 조합원 여덟 명에 대한 순차복직 합

의도 마친 상태다. 업체 폐업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 가운데 두 명이 지난주에 복직했다.

하창민 지회장은 “여전히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라며 “조직화 계기는 마련됐다. 현장 돌아가면 다수 하청노동자들의 희망이 되겠다” 라고 결의를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7월26일 13시30분 무렵 농성을 해제하는 두 조합원 맞이 긴급 환영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외투자본, 소득주도성장에 자본 철수로 위협할 듯” 외투자본 문제점과 입법 방향 국회 토론회... “문재인 정부, 하이디스 문제 해결해 지엠 등에 신호 줘야”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로 삼은 소득주도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하이디스를 시작으로 외국투자자본(아래 외투자본) 문제를 적극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은 금속노조와 이용득·홍영표(더불어민주당)조배숙·이찬열(국민의당)·김종훈(무소속) 의원실이 7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하이디스 사태로 본 외투자본 문제점과 입법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하이디스는 2012년부터 기술료 수입이 크게 증가해 2014년 1,200억 원에 달했다. 반면 설비 투자액은 늘지 않았다. 가장 많았던 해인

2010년에 100억 원이었다. 한지원 연구실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존 설비와 인력을 쥐어짜 이익을 얻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노동자 소득 증대를 통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투자는 커녕 자본 철수 위협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강조했다.

한 연구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하이디스 문제에서 취할 태도가 외국인투자기업 문제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며 “하이디스 문제를 해결하면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등 정부가 외투자본 문제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재규 노조 부위원장은 ‘제조업

을 중심으로 바라본 외국투자자본 현황과 대응방안’ 을 발표했다.

함재규 부위원장은 “고용불안은 노동기본권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명시한 투자제한 사유만 엄격히 적용해도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윤용석 성남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 2과장이 참석했다. 윤용석 성남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 2과장은 “부당해고 판결이 난 만큼 이제라도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아직 구체 안은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당사자인 금속노조, 하이디스와 대화하겠다” 라고 약속했다.